

사이버스페이스와 ‘자유’의 실험

『2001 사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홍성욱, 백욱인 편) 창작과 비평, 2001.
The Internet: A Philosophical Inquiry (Gordon Graham) Routledge, 1999.

이 봉 재*

1.

대략 1980년 이후 컴퓨터 없이 세계사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컴퓨터와 관련 응용기기술, 총칭하여 정보기술은 우리시대의 가장 의미심장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가상현실>이라는 지적/오락적 경험의 수단으로, 지구를 실시간 real time으로 묶어내는 통신수단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의 채널로서, 지식 소통 및 확산의 새로운 통로로서 등등. 하나같이 중대한 사건들이다. 지식이 보다 손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확산된다면, 경제가 세계적 규모로 재편성된다면, 강도높은 오락의 경험이 일상으로 뿌리내린다면, 어느 곳과도 값싸고 선명하게 통신할 수 있다면, 세상은 놀랍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인간관계의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만나는 방식을 급변시키는 능력, 바로 그 점에서 네트워크된 컴퓨터들의 세계 이른바 ‘사이버스페이스’는 경제, 지식, 오락의 사건을 넘어서는다. 사이버스페이스로부터의 중요한 변화들은 일차적으로 정보와 컴퓨터의 기술적 능력에서 발원하지만, 그 기술적 능력에 의해 배양된 새로운 인간행위의 형식을 매개로 해서만 전진한다. 손쉽게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 어느 곳·어느 시간 속으로 마구 뛰어 들 수 있다는 것,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으며 제약받지 않고 말할 수 있

* 서울산업대학교 인문학과 과학철학

다는 것- 인터넷을 통해 실감하고 있는 그 능력들이야말로 경제, 사회, 오락, 지식의 모든 변화를 가능케 하는 인간적 뿌리이다. 마음껏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의 <자유>, 증폭된 <자유>야말로 사이버스페이스의 의미심장한 본질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기술로부터의 현상은 철학 그리고 윤리의 현상으로 전환한다.¹⁾

이 글이 검토하려는 두권의 책은 모두 사이버스페이스의 현재를 문제화하고 있다. 한권은 주로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다른 한권은 아니키즘,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철학의 주제들을 매개로 해서 사이버스페이스를 진단한다. 그들이 의식하던 안하던 간에 그들 논의의 배면에는 자유라는 철학적 문제가 놓여있음을 확인해 보자.

2.

기술사학자 홍성욱 교수 (토론토대)와 사회학자 백옥인 교수 (서울산업대)가 편집한 『2001 사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사실 철학을 다루지 않는다.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법학자, 기술사학자, 정신의학자 등이 제출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진전된 인식들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리포트를 통해 우리들은 <자유>라는 철학적 주제가 현상적으로 어떻게 대두하는지 배울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이 여전히 철학적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사실, 문제의 어떤 깊이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 속에 내재하는 자유의 잠재력은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정보와 통신을 매개로 함으로써 물질세계의 척척한 관성을 벗어던질 수 있으며, 그리하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純度의 자유, 이성, 상상력의 질서가 구현되는 공간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다. 물질공간 속을 움직임으로써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비능률, 화학적·정보적 오염과 부패도 사라질 것이며, 피부색이나 성별도 문제되지 않으며 폭력의 위협도 사라지고, 거절당할

1)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 내용, 그리고 문화적 함의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은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술을 제대로 아는 철학자의,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안목이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배식한, 책세상, 2000)

걱정없이 타인에게 맡길 수 있는 친애의 공간도 불가능하지 않으리라고 꿈꾸어졌다. 그리하여 초창기 사이버스페이스는 부활한 <전자광장 electronic agora>으로 비유되곤 하였다. 각기 고립되어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해 폭력이나 감염의 위험없이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자 광장.

이는 결코 공상의 약속만은 아니다. 인터넷의 체험이 알려주듯 사이버스페이스는 분명 자유의 실질적인 전진일 수 있다.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와 대중주의 populism과 같은 인터넷의 사회학적 특성들- 국경이라는 정치적 경계도 지워지고, 기술적 장비와 약간의 지적 노하우만을 갖춘다면 누구에게나 진입과 소통이 허용되는 곳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는 과연 전대미문의 것이다. 현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를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것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젊은 여성들의 온라인 공동체 <달나라 딸세포>의 체험이 그에 대해 잘 알려준다.²⁾

그들은 오직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주류남성들의 힘과 눈초리를 벗어나 주눅들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 하나로 네트워크에 들어선다. 거기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여성들끼리의 주눅들지 않는 만남, 말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IMF 초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종이 값은 우리들이 인쇄매체로 가는 길을 막았는데, 그때 우리들이 발견한 것이 웹이라는 매체였다. — 그때까지 우리에게 사이버 페미니즘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단지 인쇄매체 대용품으로 웹을 발견했을 뿐이니까.” (위책, 143) “우리가 처음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 접속하면서 느꼈던 짜릿함은 바로 여성이라는 질긴 육체성의 질곡으로부터 풀려났다는 느낌이었다.” (위책, 141)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여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언제나 옳거나 정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태도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결여되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당연히 우리는 오류를 통해서도 배운다. 두려운 것은 오류가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차단되는 것이다.” (위책, 147) “사적인 감상의 토로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던 몇가지 주제들은 독자들의 글쓰기가 덧붙여지면서 사회적인 주제로 전화될 수 있었다. 경험을 공유하는 소수집단에서는 <모

2) 달나라 딸세포 “여성과 사이버 스페이스,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 『2001 사이버 스페이스 오디세이』 (홍성욱, 백옥인 엮음. 창작과 비평, 2001)

든 것이 정치성을 띠는> 것이다.”(위책, 148)

3.

현실에서 이미 자유를 훼손당한 사람들에게 사이버스페이스는 분명 구원일 수 있다. 약한 이들, 새로 시작하고 싶은 자, 달리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정녕 희망의 장소이다. 성별, 나이, 피부색, 국적, 경제적 신분 등이 모두 불문에 붙여질 수 있는 곳이 사이버스페이스 말고 어디에 있을까? 정보와 지식들을 그토록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하여 우리는 국가라는 정치적 간섭, 비용이라는 경제적 간섭, 전통이라는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자기 정체성이라는 심리-역사적 간섭 그리고 시공간이라는 형이상학적 간섭마저도 떨쳐버릴 수 있다. 더 이상 전통이나 명분, 관계에 의해 변색되지 않은 진정한 자아, 진정한 만남, 진정한 연대의 출발점이 거기에 있을 듯하다. 이로부터 민주주의의 밝은 장래도 그려볼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라는 획기적인 통신망을 통하여 충분한 정보가 공급되고, 현실권력의 외적, 내적 검열로부터 벗어나며, 자유로운 연대의 가능성이 보장되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짐으로써 민주주의는 다시금 역사적 원형의 모습, 대등한 개인들이 함께 토론하고 결정짓는 고대 회랍의 그 형태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치있는 가능성이기에 진지한 사람들은 사이버스페이스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한다. 오늘날 사이버스페이스는 안전하지 않다. 그 무정형의 동력이 갖는 잠재력은 국가권력과 경제적 이해집단의 강력한 견인에 의해 이미 원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 간섭은 대단히 교묘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학자 로렌스 레식 Lawrence Lessig의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³⁾ 그에 따르면 오늘날 사이버스페이스를 위협하는 항목은 법, 윤리, 시장과 더불어 코드 code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구조 architecture>

3) L. Lessig "무엇이 네트를 규제하는가" (『2001 사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 홍성욱, 백옥인 엮음. 창작과 비평, 2001)

라는 것이다. 여기서 구조라는 용어는 흔히 생산물의 '사양'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담배의 속성, 디자인, 제조방식 등이 담배의 구조 architecture에 해당한다. 담배의 구조는 그 자체로 흡연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일 연기없는 담배를 제조한다면 더 많은 장소에서 흡연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을 것이며, 반면 독한 향의 담배라면 흡연의 기회가 더욱 제한될 것이다.

레식의 이야기는 더 나간다. 오늘날 사이버스페이스는 구조적인 제약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우리를 인터넷에 접속시켜주는 응용소프트웨어들- 브라우저, 운영체제, 자바 Java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암호화, 전자우편 시스템 등이 모두 인터넷의 구조에 해당하는데, 오늘날 그것들이 상업적 이윤의 극대화 내지는 국가안보의 관점으로부터 점차 구조적 제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그런 관점에서 '그누/리눅스 Gnu/Linux'라는 이름의 운영체제로 널리 알려진 <공개소스 open source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레식의 핵심논점이다.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자주 변천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규제도 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4.

사이버스페이스의 자유는 분명 현실의 오래된 힘들에 의해 침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제가 이 정도의 것이라면 철학자들이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이야 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철학적 문제는 다른 곳에서 온다. 사이버스페이스 내부로부터의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널리 알려진 이중성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非폭력·평등의 공간인 사이버스페이스는 동시에 언어적 폭력, 절제되지 않은 음란성, 무의미한 시간낭비가 난무하는 곳이다. 돈없고 권력없는 젊은 여성들에게 기회의 공간인 그 곳은 동시에 그들 젊은 여성들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욕설하고 모욕할 수 있는 무례/폭력의 공간이기도 하다. 예민한 눈으로 보건대, 사이버스페이스는 모든 잠재적 미덕이 가지고 있던 어둠이 두배가 되는 곳, 자유가 능욕당하고 괴롭힐 자유가 되는 곳,

익명성은 음란전화의 익명성이 되고 물리적 육체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누군가의 가상의 육체를 고문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되는 그런 세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 그럴까? 사이버 스페이스 속에서 희망의 꿈이 쉽사리 악몽의 형태로 변전한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술낙관론자들이 말하듯 단순히 정보의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보수주의자들이 그러하듯 인간성의 유구한 사악함으로 이해해야 할까? 그렇다면 진부한 문제다. 그 문제라면 여기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달리 이해하는 방식은 없을까? 사이버스페이스라는 특별한 공간형식, 자유를 증폭시키는 공간형식이 조장해주는 인간행위의 양태로부터 이 사태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사이버스페이스의 자유라는 주제는 새로운 차원, 철학적 차원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정치평론가 제프 멀건 Geoff Mulgan의 견해가 흥미롭다.⁴⁾

사이버스페이스의 미만이 제기하는 철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멀건에 의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연계 connexity>라는 문제다. 오늘날 지구인들은 두가지 차원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오염의 사슬과 정보기술의 네트워크. 지금 우리의 세상은 오염된 물을 나르는 강, 광범위한 지역에 산성비를 뿌리는 바람, 독성 쓰레기와 방사능을 이리저리 옮기는 해류들의 촘촘히 묶인 그 물망 web 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에 개발된 전신과 라디오로부터 20세기가 보유한 위성, 인터넷, 무선전화기, 항법기술 등을 통해 그 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전일적 holistic 통신시스템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인가? 우리 모두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21세기적 사태는 서구 근대가 성취한 최대 업적으로서의 자유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성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는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류의 격률은 그 실질적 의미를 상실한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점점 더 의존적으로

4) G. Mulgan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2001 사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 홍성욱, 백옥인 엮음. 창작과 비평, 2001)

되어가는 현대사회의 또다른 뚜렷한 사실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롭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상호의존적이고 연결되어 있다.”(위 책, 214)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멀건은 근대 이래 지금까지 서구가 보유해 왔던 윤리, 정치, 경제의 근본명제들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고립된 개체를 사회의 구성단위로 보는 관점, 구속받지 않는 권력 또는 주권의 개념을 의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들 중 어떤 것도 상호연관된 세상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은 외부의 세상을 殘餘로 생각하며, 자유의 한계에 대한 의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생각들은 개인이나 국가가 무한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 실패나 환상으로 귀결되며 폐해를 가져온다.”(위 책, 223)

그렇진대 지금 국가의 기능은 재정의되어야 하며, 우리의 도덕감과 정의감 또한 갱신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과도한 규범적 사유를 탈피하여, 하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숙고하고 상상하는 ‘도덕적 유창함 moral fluency’이 배양되어야 하며, ‘상호성 reciprocity’이라는 오래된 正義의 원칙이 갖는 의미도 다시 음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멀건의 의견이다.

그런데 이것은 힘든 변화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인류의 성숙일 수도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는, 사람들을 세속적이고 영적인 권위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년기와 흡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대사회는 사춘기와 비슷한데, 그 이유는 근대사회가 무엇보다도 자기를 계발하고, 도피하고, 욕망을 채우는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부상하는 새로운 사회는 사람들이 상호의존의 그물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어른이 되는 것과 흡사하다. 자유와 창조성이라는 위대한 개화를 가능하게 했던 세분화로부터,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통합으로 진화하고 있다.”(위책, 232)

5.

제프 밀건의 통찰력은 주목할 만하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주 이야기되지만, 그것을 윤리적, 정치적 청사진의 근본조건으로 포착하는 안목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예리한 동시에 그 실천적 함의 또한 막대하다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정보기술과 자유라는 주제에 대한 철학적으로 충분한 해석일까? 그렇지 않다. 연결된 세계 속에서 자유의 고전적 개념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수락한다해도, 그것이 도대체 어떤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밀의 자유와 다른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는가? 연결된 세상 속의 우리로서는 사실상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닐까? 그러니 이것은 자유의 종말인가, 진화인가? 철학자들로서는 이런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물음의 깊이에 대해 미진하다는 것- 그것이 사회학적으로 정위된 『2001 사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특색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고든 그래엄 (Univ. of Aberdeen)의 책은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해 준다.⁵⁾ 그래엄에게 인터넷의 미래는 단호히 어둡다. “— 그것은 합리적 의사결정보다는 소비자 정치학을 조장하는 민주주의의 부정적 경향성을 강화할 것이다. 거의 필연적으로 그것은 개인주의의 원자론적 성격을 약화시키기는 커녕 강화할 것이다. —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정책에 의한 외적 개입이나 가상공동체라는 내적 기제도 유효한 보정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위 책, 168)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중심에는 <자유>라는 철학적 개념의 문제가 놓여있다.

그래엄의 논의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회한다. 전통적으로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에 맞서서 자신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다. 왜 뛰어난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인민이 지배하는 형태가 바람직한가? 다수의 오류, 우매함에 대해서는 어떤 방책이 있는가? 이런 물음에 답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 인민이 주관하는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만큼이나 대중정치 내지는 우중정치의 경향을 내재하고 있다

5) G. Graham, *The Internet: A Philosophical Inquiry*, Routledge, 1999.

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자유>의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 여기서 인간의 자유를 정확히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자유가 인간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그래엄은 자유의 칸트적 개념을 환기시킨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란 그저 욕망에만 충실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명제. 우리는 언제 자유로운가? 물질적 속박이나 규범, 논리의 요청에 마냥 속박된다는 것은 분명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위하는 것도 자유로운 상태는 못된다. 그것은 욕망에 묶인 노예의 처지일 뿐이다. 그렇다면 자유는 불가능한가? 물론 아무런 구속도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 하늘을 나는 천사의 자유는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한계의 지점으로부터 인간의 자유가 시작된다. 인간의 자유는 스스로 어떤 외적 힘에 속박됨을 자각할 때 확인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자유의 존재로 의식하게 된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모든 외재적인 힘들을 선명히 의식해야 하며, 그런 다음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위하려는 의지와 결단으로써 그것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가? 철학적 용어로는 이성 또는 의지일 것이며,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교육과 전통에 의한 지적 훈육일 것이다.

이렇듯 자유가 원초적 감정/욕구의 훈련된 조절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사회가 제공하는 훈육의 힘과 자연적 욕구를 조정 coordination 함으로써 가능하다면, 인터넷은 본성상 위험한 장소로 보인다. 아무런 질서도 갖지 못하며, 다양한 취향과 이해관계를 표방하는 방대한 자료들 속을 항해할 수 있는 능력/자유는 구조적으로 調整보다는 同調의 경향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아동 포르노>같은 반인륜적 행태들, 그리고 현실세계에서는 함부로 표명하기 어려운 근거없는 공상들·독단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자유 속에서 득세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 저열한 작태들, 의견들, 취향들이 인터넷의 자유 속에서는 오히려 동조자들을 만나 강화된 신념으로 변해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난맥상들이 그들 저속하고 변태적인 사람들에게만 원인귀속시킬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사이버스페이스가 허용하는 금제없는 자유의 '정상적인' 귀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의견과 자신의

것을 비교해야할 상식적 부담, 합리적 비판에 의하여 자신의 의견과 취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규율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목청높은 과장, 왜곡, 기벽, 독단들이다. 이런 고찰들로부터 그래엄은 인터넷이 구현해주는 행동/상호작용의 형식은 본성상 도덕의 공동체라기 보다는 도덕의 파편화를 강화시키리라고 예견한다.

6.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분석에 동의할 것 같다. 그리고 정확히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유의 위기라는 철학적 위협이자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는가? 아무런 방책도 없이 이 가파른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분석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꽤나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오직 악몽만이 가능하다거나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기술발전의 논리상 그 발전과정의 임의적인 통제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있는 이득도 결코 사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견들로부터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편리하고 저렴한 미디어라는 장점, 엄청나게 많은 정보, 외부의 제약을 무력화시키는 자유-이것들은 모두 좋은 사회를 위한 의미있는 자원이지만, 그자체로 충분조건은 못된다는 사실이다. 좋은 사회는 자유의 성숙 또는 성숙된 자유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자유는 어떻게 성숙하는가? 그래엄은 사회화의 과정을 강조한다. “인터넷이 상업, 교육, 오락의 영역과 결합하여 현대적 삶의 중요한 국면으로 남게되는 한, 우리들이 계속해서 사회화의 일반적 과정에 의해 훈육되고 제약받아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위책, 102)

그러나 우리들, 형이상학을 좋아하는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을 직면하여 우리는 더욱 ‘현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배운다는 것은 낯선 것과 만난다는 것이며, 가상이나 환상으로부터 현실을 구분시켜주는 형이상학적 種差는 바로 낯선 것들의 존재다. 그런즉 사람들이 섞이

고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교육 내지는 사회화의 과정이란 형이상학적 의미로서의 현실을 강화시키자는 말과 다름아니다. 현실 즉 낯선 것들과 조우하고 견디며 그것에 대해 배워가는 공간의 구조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광란의 무질서, 反文明 속으로 전락하기 십상일 것이다.

폭발하는 가상의 시대, 인간은 여전히 현실을 중시할 수 있을까? 그래엄은 긍정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지적해준다. “자동차나 전화가 초래한 변화들이 아무리 놀랍다해도,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변화들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셰익스피어, 뉴턴, 톨스토이 — 를 읽고 공부한다는 사실이다.”(위책, 169)